



캄보디아 이주민들이 설날 대법회에서 린사로 스님(왼쪽 끝)에게 공양을 올리고 있다.

손수 지은 음식으로 스님에게 공양

▶ 캄보디아, 설날 대법회 현지 탁발 풍경 재현

4월 10일 군포시 시민체육광장에서는 캄보디아 이주민의 설날 대법회가 열렸다. 이날 설날 대법회에서는 탁발하는 스님이 마을에 오면 대문 앞에서 기다렸다가 공양을 올린 현지 풍경을 재현해 눈길을 끌었다. 법회 참가 이주민들은 큰 사각형 형태로 둘러섰고, 그 앞을 린사로 스님을 비롯한 캄보디아 스님들이 차례차례 다니면서 탁발을 했다. 이주민들은 스님들이 자신들 앞에 오면 밥과 불전을 공양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스님에게 예를 갖췄다. 탁발 후에는 이주민들이 직접 장을 보고

만든 '섬노그리' 등 캄보디아 음식들로 함께 점심을 먹었다. 캄보디아 사람들은 스님에 대한 공양을 중요하게 여긴다. 스님에게 공양을 올릴 때는 시중에서 구입한 음식이 아니라 직접 만든 음식을 올리고, 의전 행사에서도 국민의례에 앞서 스님께 공양을 올리고 예불을 먼저 드린다. 식사를 한 뒤 이주민들은 스님을 찾아 축원을 기도했다. 스님들과 가까운 거리에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뒤 함께 기도를 올렸다. 주로 가족들의 건강과 신년 한 해 동안의 행복 등을 기원한다. 이들은 설날에 스님을 찾아 기도를 올리지 않으면 죄가 쌓인다고 믿는다. 스님이 해주는 축원은 대부분 지난 1년

동안 있었던 안 좋은 일들을 털어버리고, 신년에는 좋은 일이 가득하라는 내용이다. 캄보디아에서는 명절 때가 되면 독경을 정해서 반포한다. 그러면 불자들은 그 경문을 독송한다. 이 날도 캄보디아 이주민들은 부처님에게 국가와 국민들의 평화와 안녕을 기원하는 경문을 함께 읽었다. 법회에 참가한 프세잉키아(32)씨는 "오랜만에 친구들과 안부를 나누고, 부처님께 기도도 올릴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현재 캄보디아 이주민들은 군포와 안산, 구미 등에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 날 법회가 열린 군포에도 금정동에 캄보디아 불교센터가 위치하고 있다. 금정동 캄보디아 불교센터에서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이면 법회가 열린다.

법회가 열린 캄보디아 이주민들은 함께 음식을 만들어 나누어 먹고, 스님에게도 공양을 올린다. 이 센터는 2008년 5월 경문을 열어 이주민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법당이 좁아 개선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캄보디아 불교는 한국과는 다소의 차이가 있다. 그러나 린사로 스님은 차이를 염두에 두지 않는다. 부처님 말씀은 결국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린사로 스님은 또 "불교를 통해 이주민들이 서로에게 힘이 되는 모습을 보면 기쁘다. 앞으로도 캄보디아 불교를 알리고 이주민들의 구심점 역할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기범 기자

“방글라데시 사원 세우는 날 꿈꿔요”

▶ 낯고 허름함 속에서도 법향 가득 김포 '보타사'

김포시 양곡면 양촌리에 위치한 59.50㎡(약 18평) 규모의 양지빌라 13동. 낯고 오래된 이곳 4층에는 방글라데시 이주민 법당 '보타사'가 자리 잡고 있다. 보타사에서 방글라데시인들은 매일 한 차례 정기 법회를 갖는다. 그 밖에도 평일이나 매주 일요일에도 시간이 되는 사람 들끼리 모여 기도를 올린다. 2009년까지 월세로 생활하던 이들은 조계종과 김포 용화사 등 한국 불교의 도움으로 1년 전 지금의 전셋집을 마련했다. 특히 강서구 해인선원 탄압 스님의 지원으로 4월 24일부터는 불상을 모시고 법회를 열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불상도 없이 방글라데시에서 가져온 평화 몇 점을 벽에 걸어두고 기도를 올렸다.

4월 정기 법회가 열린 24일에는 보타사에서 불상 점안식이 예정돼 있었다. 오전 11시 경 해인선원의 탄압 스님과 승가대의 지성 스님, 보관 스님이 도착했다. 점안식은 탄압 스님의 천수경 봉독으로 시작됐다. 방글라데시인들은 경건한 마음으로 합장하고 눈을 감았다. 천수경 봉독 후에는 보관 스님이 청수를 이용해 액운을 밖으로 몰아낸 뒤 점안을 시작했다. 이제 정식으로 불상을 모시고 기도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점안식 후에는 보관 스님을 법사로 모시고 법문을 청했다. 보관 스님은 "이제 '보타사'에서 내가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지 느끼길 바란다. 부처님 앞에서 서로에게 힘이 되고 행복하게 지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보관 스님의 법문 후, 방글라데시인들은 모국어로 기도를 올리며 자신들과 가

족들의 안녕과 행복을 기원했다. 보타사에는 봉축을 준비하는 한국의 여느 사찰과 다름없이 법당 천장에 연꽃을 매달아 꾸며놓았다. 그러나 방글라데시에서는 천장에 연꽃을 매달지 않는다. 집집마다 법당을 마련하고 스님을 집으로 초청해 기도를 드린다. 집에는 불상 대신 탱화를 많이 걸어 둔다. 이들은 또 법당에 공양으로 올린 음식을 절대 먹지 않는다. 한국에서는 공양물을 먹으면 복을 받는다고 믿지만 방글라데시인들은 오히려 병이 생긴다며 감ભ에 버린다. 한국에서는 인근에서 쉽게 강을 찾을 수 없어 마당이나 밭에 버린다. 방글라데시에서도 요즘은 법당에 들어갈 때 양말을 신고 들어가기도 한다. 그러나 큰스님이 계시거나 역사가 오래된 사찰을 방문할 때는 일주문에서부터 양말을 벗고 맨발로 들어간다. 방글라데시인들은 양말을 신고 사찰에 들어가면 꿈에 부처님이 나타나서 벌을 준다고 믿는다. 2005년에 한국으로 귀화한 라나씨는 "우리는 얼마 뱃속에서 맨발로 세상에 왔다. 그리고 다시 맨발로 돌아가야 한다. 음식을 손으로 먹는 이유도 우리가 태어났을 때의 모습과 부처님 당시의 모습을 지키려는 이유다"라고 설명했다. 이들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부처님 당시의 모습을 지키려는 마음이 깃들어 있었다. 라나씨는 또 "방글라데시 법당을 세워 영어로 법회도 하면서 방글라데시와 한국이 서로를 이해하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박기범 기자



방글라데시인들이 보타사 불상 점안식 후 부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다.

90분간 흔들림 없는 명상수행이 자랑



주 스님(오른쪽 뒷줄)과 태국인들이 연등을 만들며 밝게 웃고 있다.

▶ 태국 대표 연등행렬 불광사 이주민 법당

태국은 국민의 대다수가 불자인 불교 왕국이다. 서울 안에 작은 태국, 태국사람들이 찾은 이주민 법당을 찾았다. 법당에 들어서니 오랜지색 스님의 가사가 한눈에 들어온다. 법회시간인데 다들 명상에 잠겨있다. 1시간 동안 법문 하고 1시간 30분은 명상을 한다. 법문시간은 스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여기는 우리와는 매우 다른 모습이다. 명상을 중시하는 남방불교의 특징을 엿볼 수 있다. 스님은 잠실 불광사에서 2008년부터 3년째 매달 첫 번째 일요일에 법회를 열고 있다. 주 스님은 태국 단막가야 선원에서 한국 불교를 배우기 위해 한국에 왔다. 스님은 현재 동국대 불교학과 2학년에 재

학 중이며 의정부 불암사에 기거하고 있다. 뿌라마하는 빨리어에 능한 사람이란 뜻으로 우리말로 하면 박사해 해당한다. 태국이주민 법회를 진행하는 뿌라마하 주 스님은 이주민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걱정했다. 스님은 "법회에 참석하는 이주민 대부분이 결혼으로 한국에 처음 오게 된 분들이다. 법회를 통해 지친 타향살이에 위로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주민들은 한국어를 잘 못해서 혹은 다른 여러 다른 이유로 한국살이가 쉽지 않다. 스님은 이주민들이 명상을 통해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고 일상생활에도 평안함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법회에는 평균 40여 명이 참석한다. 이들은 수월, 의정부, 인천, 안산 등 수도권 각지에서 찾아온다. 한국에 온지 얼마 안 됐다는 한 청년은 "한국말이 서툴러 대중

교통으로 먼 길 오기 힘들지만 이곳에 오면 고향 분들을 만날 수 있다는 기쁨에 즐겁다"고 말했다. 어린 아이들은 어른들이 명상에 잠겨있는 동안 불광사 반야회 자원봉사자들이 준비한 구연동화를 듣고 한글 공부도 한다. 주말에 마땅할 갈 곳이 없어 불자임에도 교회에 나가야했던 아이들도 여럿 있다. 그러나 지금은 불심화 보살의 구수한 구연동화와 보살의 보살의 종이 접기에 흥미를 보이며 "또 와도 되냐"고 묻곤 한다. 자정심 보살은 주 스님의 매니저를 자처하며 3년째 이주민 법회 진행을 돕고 있다. 자정심 보살은 "아이들 교육처럼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싶다. 스님을 구심점으로 사랑방이 만들어졌지만 스님의 주거는 마련하지 못해 안타깝다"고 했다. 불광사 태국이주민 법회는 이번 봉축에 '태국 대표 연등행렬'에 참가했다. 4월 23일에는 주 스님과 함께 태국 대사관 직원들과 이주민들이 모여 연등행렬에 쓸 200여 개의 연등을 만들었다. 연등 만들기에 동참한 태국 대사관 1급 서기관 나락씨는 "내손으로 만든 3m의 높이의 장엄등과 태국을 대표로 연등행렬에 참가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이주민은 태국 대표로 연등 행렬에 참석했다는 생각에 모두 고조 돼있었다. 그들은 법당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아니라 한국에 태국 불교를 알리러 파견된 늘름한 대표단이었다. 천진영 기자

대한불교 조계종 군중특별교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nonhanhunsos 호국연무사 신축대작불사의 원만성취를 위해 아낌없는 성원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 드립니다. 더욱 더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군중교구장 자 광
 대한민국 육·해·공군 군승일동 합장
 국군불교총신대회 회장 육군중장 최용림

nonhanhunsos 신축불사 후원계좌

제일은행 325-20-221949 국민은행 477401-01-179603
 농협 301-0063-3042-71 예금주 : 군중특별교구

— nonhanhunsos 호국연무사 신축불사 조감도 —

☎ 군중교구 02)749-8646 / 797-7266 www.gunindra.com

불기 2555년 부처님 오신날

My Bride Dongguk!

엘리트 불자로 세상을 향도합니다.

부처님의 학교 동국대학교, 인간과 세상에 대한 불교의 포괄적 안목과 지혜로 키운 엘리트 불자를 만들며 흠뻑 젖어 온 세상에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제 인류는 희망을 만납니다.

Re-start 동국대학교 제2건학운동

동국대학교 제22학년 후원 문의 동국대학교 대외협력본부 02-2260-3300

dongguk UNIVERSITY